사랑의 온도 팍팍 올라라

1일 오후 목포시 옥암동 도청입구 사거리에서 열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 송영수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참석자들이 탑을 제막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

천마총서 기마인·새 그림 찾았다

적외선 조사 채화판서 각각 7점·5점 추가 확인

1973년 경주 천마총 발굴 때 천마도 장니(흙받이)와 같은 장소에서 출토된 채화판(彩畫板)이라는 유물에서 말을 탄 인물 그림 7점과 상상 속의 새 그림 5점을 추가로 찾아냈다.

천마총 출토품을 소장 중인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최근 한국박물관 100주년 기념특별전에 출품한 천마도 장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장곽(주검을 위한 물건을 넣어두는 나무상자)에서 수습한 채화판을 적외선 촬영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1일 말했다.

채화판은 자작나무 혹은 산벚나무 껍질인 백화수피(白樺樹皮) 2장을 겹쳐 누빈 개별 판을 마치 팔찌 모양으로 만든 다음, 그 윗면에는 구간을 나누어 서조도(瑞鳥圖·상서로운 새 그림)와 기마인물도(騎馬人物圖·말탄 사람 그림)를 그려넣고, 아랫면에는 이렇다 할 만한 구획이 없이 초화문(草花文·풀이나 꽃 그림)이나 능형문(菱形文·마름모꼴)을 그려넣은 유물을 말한다.

이런 채화판에 서조와 기마인물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은 이미 육안을 통해서도 알려졌고, 천마총 발굴보고서에도 수록됐지만 이번 적외선 조사 결과 그 흔적이 확실히 드러났는가 하면, 나아가 육안으로 볼 수 없던 새로운 그림이 존재를 드러냈다. 적외선 촬영 결과 서조도와 기마인물도 모두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그것들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박물관은 이런 새로운 성과를 오는 4일 박물관 소강당에서 개최하는 제11회 동원(東垣) 학술전국대회에서 유병하 국립공주박물관장과 성재현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발표를 통해 공개한다.

1973년 경주 천마총 출토 당시 채화판. 서조그림(점선 부분)이 완연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 적외선 촬영을 통해 기마인물도 7점과 서조도 5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연합뉴스

한편, 이번에 공개한 채화판의 기마인물 그림의 말은 누가 봐도 말임이 명백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함께 출토된 천마도 장니의 소위 '천마'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천마도의 천마는 말이 아닌 기린이라는 주장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두 연구자는 출토 지점과 정황으로 볼 때 채화판이 마구(馬具) 일종이거나 관모(冠帽.모자) 부속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이번에 새로 확인한 기마인물도와 서조도는 실물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신라 미술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광주 아파트 관리비 서구 유촌동 주공 가장 비싸다

광산구 월곡2동 주공 가장 싸…최대 4배 차이

전남지역은 여수시 미평동 선경아파트 최고

광주·전남지역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비싼 단지는 광주의 경우 서구 유촌동 상무 버들마을 주공 1단지이며, 전남은 여수시 미평동 선경2차 아파트로 조사됐다. 또 광주에서 관리비가 가장 낮은 곳은 광산구 월곡2동 명천마을 주공 9단지, 전남은 광양시 금호동 매화아파트였다. 이들 아파트 관리비의 차이는 최대 4배에 이른다.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현황을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hmais.net)'에 등록된 광주 483개 아파트 단지, 전남 313개 단지(전국 1만465개 단지)의 관리비 내용(8월 사용분 기준)을 분석한 결과, 광주에서는 서구 유촌동 상무 버들마을 주공 1단지가 ㎡당 890원, 전남에서는 여수시 미평동 선경2차 아파트가 ㎡당 767원으로 관리비가 가장 비쌌다. 또 전국적으로 가장 관리비가 비싼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광진 트라팰리스'(㎡당 1천959원)였다.

광주에서 ㎡당 관리비가 가장 싼 곳은 광산구 월곡2동 명천마을 주공 9단지로 ㎡당 224원에 불과했으며, 전남에서는 광양시 금호동 매화아파트로 256원이었다.

광주에서 가장 싼 관리비와 비싼 관리비의 차이는 4배, 전남은 3배에 달했다. 지역별 평균에서는 광주시가 ㎡당 454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쌌으며, 전남은 그 다음으로 468원이었다. 서울이 ㎡당 평균 709원으로 가장 비쌌고, 경기도 614원, 인천 586원, 대전 579원 순이었다.

이날 공개된 전국 아파트 단지는 150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단지로, 관리비 공개를 하지 않는 단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8월부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매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준공연도나 관리형태, 난방방식, 관리인원 등 세부 내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객관적인 조건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확연할 경우 각 항목 별로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반에게 첫 공개된' 공동주택관리시스템khmais.net)'에 접속자가 폭주, 홈페이지가 다운되면서 접속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U대회 남북교류 민간차원에서 이뤄질 듯

특별법·국제경기 지원법 통합 제정

단일팀 구성 등 정부 지원 조항 삭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이하 U대회 특별법)이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및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국제경기 지원법)에 병합·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U대회 특별법에 명시된 남북단일팀 구성·지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조항이 삭제돼 U대회 개최를 통한 남북한 체육교류는 민간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당초 U대회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했으나, 조기 법제정을 위해 기존 국제경기 지원법을 개정해 U대회 지원조항을 포함시키기로 정치권과 협의를 마쳤다.

법 개정에 따라 U대회 특별법에 명시된 남북 체육교류 지원조항은 빠지게 된다. 대구시와 인천시가 남북 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낀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 광주 하계U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동시 입장 등 체육 교류는 향후 출범할 U대회조직위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당초 이 법안은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대회를 통해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정책의 마련과 민간단체 등의 체육교류 확대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시는 U대회 특별법안의 내용이 국제경기 지원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법 개정에 따른 대회 준비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남해안 절경 화보집으로 여수박람회 알린다

조직위·9개 자치단체, 50개국·국제기구 등에 배포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여수 및 남해안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은 사진집이 발간된다. 특히 이번 사진집은 세계 5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 환경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어서 여수세계박람회를 알리고 남해안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총 220페이지 분량의 고급 양장제본의 본 책과 휴대할 수 있는 160페이지 분량의 별책 등 두 종류의 2012 여수세계박람회 남해안권 화보를 2일 발간한다. 이번 화보 제작에는 조직위와 여수시를 포함한 남해안 9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서울과 여수지역 사진작가 4명이 8개월간에 걸쳐 남해안 일대를 촬영한 사진 중 총 365컷의 작품이 화보에 수록됐다. 조직위는 6개 국어로 1만5천 부를 발행해 이 중 6천 부를 전 세계 50여 개 주요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 환경단체, 정·재계 주요 인사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남해안권 화보는 향후 박람회가 개최되는 2012년까지 매년 참여 범위를 넓혀가며 다른 주제로 발간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화보는 남해안권 화보 연작 중 첫 번째 작품이다.

한편, 조직위는 2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금호아트갤러리에서 화보 발간 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화보에 수록된 사진 40여 점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전남도 청사 로비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 컨벤션 센터(10~12) ▲여수시 청사 로비(14~16) ▲여수공항 대합실(17~18) 등에서 전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